



2014년 1/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란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4년 1/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4/4분기보다 소폭 둔화된 7.4%로 발표되었는데,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.

-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7.6% 증가하여 2013년 4/4분기 19.9%와 2014년 1~2월 증가율 17.9%를 하회함¹⁾.
-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.0%를 기록하여 전분기 13.6%보다 1.6%p 하락하였으며 2014년 연간 목표치 14.5%에 크게 미치지 못함.
 - 이는 접대, 출장, 관용차 축소 등 반부패 정책 등으로 기업 소비의 위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.
-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.4% 감소하여 2013년 4/4분기 7.5% 증가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입도 1.73% 증가하는데 그침.
 - 이는 2013년 1/4분기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(+18.3%)되었던 기저효과와 허위 수출 감독 강화,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원인임.
- 시장 전망치 7.3%를 초과하였으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근거한 부정적 전망과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으로 나뉨.

■ 투자 및 수출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와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이 구조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경제 전망을 확산시키고 있음.

-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투자가 2012년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었음.
- 3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.6% 감소하였으나 수입도 11.3% 줄어들어 “불황형 흑자”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음.

1) 2014년 3월 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2014년 1/4분기 실적이 발표됨.

- 로이터 통신은 무역 수지 지표 악화가 중국의 제조업 경기 둔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함.
 - WSJ는 중국 제조업 둔화에 따른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며, 수출 둔화보다 수입 감소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.
 - 201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매판매 둔화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 -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부동산 대출이 집중된 신탁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, 중국 가계의 소득 감소로 소매 판매 둔화가 심화될 수 있음.
 - 부동산 투자 비중이 큰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금리자유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심화되고 있음.
- 반면 2014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2/4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.
- 2014년 4월 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서부 지역 철도 건설 투자 확대와 판자촌 및 농촌 주택 개량 사업,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.
 - 중국의 도시화율은 51%로 2011년 현재 선진국 70%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.
 - 적극적인 개혁과 경기 부양책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.
 - 2014년 1/4분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기준치인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2/4분기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- 중국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차는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.
 -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상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.

(기획재정부, 중국 해관총서, 국가통계청, Wall Street Journal 등)